

경도 지적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시제이해 비교 연구

최 선 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김 화 수**

대구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교수

《 요 약 》

본 연구는 경도 지적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시제이해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 시제와 관련된 평가와 중재 시 시제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시간부사어 제시 유무에 따른 시제 지도의 효율성에 대해 알아보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 대상은 언어연령을 6세에서 7세(평균 7세 0개월)로 일치시킨 경도 지적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자는 시제 어미와 시간부사어 '아까', '지금', '이따가'를 사용하여 과거, 현재, 미래시제를 나타내는 동영상 제작하였으며 시제에 맞는 동영상을 지적하는 과제로 총 30문항을 가지고 실시하였다. 경도 지적장애아동과 일반아동 간 시제이해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t -검정과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집단 내 시제이해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경도 지적장애아동과 일반아동 간 과거, 현재, 미래시제이해능력에서 일반아동에 비해 경도 지적장애아동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제이해순서는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일치하였다. 그리고 경도 지적장애아동과 일반아동 간 시간부사어 유무에 따른 과거, 현재, 미래시제 이해에서 시간부사어가 제시된 경우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경도 지적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은 시간부사어 제시 여부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시제이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간부사어의 제시는 경도 지적장애아동들에게 시제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러한 결과는 시제에 대한 평가 및 중재 시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경도 지적장애아동, 시제, 시간부사어

* 제1저자(pinkcsh@hanmail.net)

** 교신저자(whasoolang@hanmail.net)

1.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한국어는 어휘 범주와 문법 범주에 걸쳐서 시간과 관련된 언어표현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시간부사어나 시간적인 양상을 나타내는 표현은 일정한 의미를 가지며 시간 표현 관련 어휘 범주를 형성한다. 이러한 표현들은 각각의 범주에서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문장에서 서로 보완하며 국어의 시간 관련 현상을 표현한다.

문법에서 일반적으로 시간 표현의 개념은 시제(tense)와 상(aspect), 그리고 서법(mood, modality)이다. 시제는 발화시와 문장에서 지시되는 시간과의 문법적 대조에 의해서 표현되는 문법 범주이다. 전통 문법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삼분법의 기본 시제를 인정한다.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 있으면 과거,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하면 현재,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뒤에 있으면 미래로 구분한다. 시간부사어는 시간개념과 관련되는 부사어이며 시제 및 상으로 표현되는 시간의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서술어의 의미변화를 가져와 화자의 감정과 관련되어 심리적 요인 및 인식을 좀 더 분명히 하는 기능도 한다(송상희, 2009).

시제는 문법과 관련되며 어린 나이에 발달하기 시작한다. 생후 17개월부터 시제가 출현하기 시작하며(이필영, 전은진, 안정호, 2009), 28개월에서 30개월 사이의 유아들이 산출한 어휘를 살펴보면 과거·현재·미래시제를 포함하는 말이 50% 이상 나타난다고 한다(최은희, 2000). 2세에서 2세 6개월 사이에 과거시제, 미래시제 사용이 나타나며(서봉연, 주영희, 1986), 2세 6개월부터 현재형이 나타나며 2세 7개월 이후부터 시간과 관련된 시간부사어가 산출된다고 보고되고 있다(황미하, 2003). 그리고 4세 6개월에서 5세 6개월 정도가 되면 성인이 가지는 의미체계와 유사한 수준으로 시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이연섭, 권경안, 정인실, 1980) 6~7세가 되면 대부분의 시간적 개념을 이해하게 된다고 한다(김영태, 2005). 시제습득 및 발달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연구자들 간에 다소 차이는 보이지만 과거시제, 현재시제, 미래시제 순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하는 연구들이 있는가 하면(원혜미, 2005), 과거시제, 미래시제, 현재시제 순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하는 연구도 있다(서봉연, 주영희, 1986). 그리고 현재시제, 과거시제, 미래시제, 현재진행시제 순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하는 연구들도 있다(조명한, 1982; 이영자, 이종숙, 이정옥, 1997).

지적장애아동들은 낮은 인지능력과 느린 언어발달속도로 인해 전반적인 언어이해 및 표현에 어려움을 보인다(안정현, 2007). 지적장애아동들의 언어발달은 일반아동에 비해 지체되며 속도에 차이가 있으나 순서는 일반아동과 비슷하다(Bricken, 1970). 또한 지적장애아동은 구문론 및 문법형태론적 습득순서는 또래 일반아동과

같으나 습득수준이 지체되며(Hegde, 19995), 시제도 또래 일반아동에 비해 지체된다. Michael과 Tyler(2001)는 평균 지능지수가 45로 지적장애에 속하는 윌리엄스 증후군아동들과 평균언어연령을 9세 7개월로 일치시킨 일반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시간부사어를 함께 제시하여 과거시제 추론과업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연구 결과, 윌리엄스 증후군 집단은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일반집단에 비해 불규칙 과거시제 수행능력이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homas(2001)는 불규칙 과거시제를 형성하는데 특별한 결함을 가졌으나 규칙 과거시제를 형성함에는 수행이 가능한 윌리엄스 증후군이 있는 6세, 8세, 10세, 성인들을 대상으로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일반집단과 구어적인 정신연령을 일치시킨 일반집단으로 나누어 과거시제형태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연구 결과,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집단 간에는 과거시제와 관련된 불규칙 동사와 규칙 동사 사이에 더 많은 불균형을 보였으나 구어적인 정신연령을 일치시킨 집단 간에는 윌리엄스 증후군 집단이 불규칙 과거동사형태에서 결함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지적장애아동에 관해 보고된 시제에 관한 국외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과거시제에 대해 다루었으며 특정 증후군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Michael, 2001; Thomas, 2001). 국내 지적장애아동의 시제발달에 대한 연구는 읽기능력이나 화행구성 규칙수행에 대해 알아보는 연구(강창욱, 임정미, 2004; 조유진, 2001)에서 일부로 이루어진 정도로 지적장애아동의 시제발달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룬 연구는 드물다. 시제이해는 지적장애아동들에게는 다소 어려운 개념이지만(Paul, 2007) 시간개념과 관련하여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경도 지적장애아동의 시제에 대한 연구는 문법형태소의 일부로 세밀하게 다루어 이루어져야 하며 시간부사어 제시 유무에 따라 시제를 더 쉽게 혹은 더 어렵게 이해하는지를 밝힘으로써 시제를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교육을 통해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하며, 지적장애인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적응행동 및 지적기능을 보이는 경도 지적장애아동의 시제이해에 대해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경도 지적장애아동의 문법발달에 있어서 특히 시제와 관련된 평가와 중재를 할 때 발달의 기준자료를 제시하고 시간부사어 제시 유무에 따른 시제지도의 효율성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목적

경도 지적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시제이해와 시간부사어 제시 유무에 따른 시제이해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도 지적장애아동과 일반아동 간 시제(과거·현재·미래)이해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둘째, 경도 지적장애아동과 일반아동 간 시간부사어 유무에 따른 시제(과거·현재·미래)이해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셋째, 경도 지적장애아동과 일반아동 내 시간부사어 제시 여부에 따라 시제(과거·현재·미래)이해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본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 대상은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포항시에 거주하는 아동으로 언어연령을 6세에서 7세(평균 7세 0개월)로 일치시킨 경도 지적장애아동 15명과 일반아동 15명, 총 30명을 대상으로 시제이해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 연령 일치기준에 있어 생활연령의 집단이 아닌 언어연령일치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연구를 실시한 것은 생활연령이 동일한 일반아동의 언어이해능력에 비해 경도 지적장애아동의 언어이해능력이 낮다는 상대적 정보보다는 아동의 언어발달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절대적 정보가 필요하다는 선행연구(신중호, 이강희, 2002)에 근거한 것이다.

일반아동의 경우 36~60개월 사이 시간부사어가 나타나며 4세 이후에 형태소수가 급증하고 연결어미가 다양해진다(배소영, 1995). 그리고 5~6세가 되면 문법형태소의 발달도 성인 문법에 가깝게 도달하게 되며(Rice et al., 1996), 6세에 문법규칙을 숙달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 대상아동의 언어연령을 문법규칙을 숙달하는 시기인 6세에서 성인 문법의 대부분을 습득하며 비교적 안정적으로 시제습득이 이루어졌다고 예측되는 7세까지 정하였다.

경도 지적장애아동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병원이나 장애인복지관에서 지적장애 3급으로 진단받은 아동이거나 한국판 아동용 웨슬러 지능검사(K-WISC-III, 광금주, 박혜원, 김청택, 2001)결과, IQ 54~69 이하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REVT)결과 어휘연령이 6세 0개월에서 7세 11개월 사이에 속하는 아동으로 하였다.

셋째, 구문의미 이해력 검사(KOSECT)결과 6~7세의 ± 1 표준편차 이내에 속하는 아동으로 선정하였다.

넷째, 교사나 부모의 보고에 의하여 정서, 청력 및 신경학적 이상이 없고 말기관의 기질적 및 기능적 장애가 없으며 행동장애를 보이지 않는 아동으로 선정하였다.

일반아동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한국판 아동용 웨슬러 지능검사(K-WISC-III, 광금주, 박혜원, 김청택, 2001)결과 동작성 점수가 85점 이상으로 전체 지능지수점수가 정상범주에 속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REVT)결과 어휘연령이 6세 0개월에서 7세 11개월 사이에 속하며 생활연령과 2개월 이상 차이나지 않는 일반아동으로 하였다.

셋째, 구문의미 이해력 검사(KOSECT)결과 6~7세의 ±1 표준편차 이내에 속하는 아동으로 선정하였다.

넷째, 부모 혹은 교사에 의해 언어문제가 없으며 인지, 정서, 청력 및 신경학적 이상이 없고 말기관의 기질적 및 기능적 장애가 없으며 행동장애를 보이지 않는 아동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의 집단별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의 집단별 특성

집단	N	CA	지능지수 (IQ)		수용·표현 어휘력									
			평균	SD	t	수용어휘연령			표현어휘연령			구문의미 이해력		
						평균	SD	t	평균	SD	t	평균	SD	t
경도 지적장애 아동	15	10:4	64.47	2.97		70.60	3.76		73.80	3.34		37.47	4.82	
일반 아동	15	6:7	100.07	3.28	31.13*	70.60	3.00	.00	73.67	4.50	-0.09	40.73	4.27	1.96

N : 사례수, CA : 생활연령
*p < .05

2. 연구 도구

시제이해검사에서 검사문항의 시간부사어는 시제와 관련된 것 중 실생활에서 자주 쓰이며 시점에 초점을 둔 ‘아까’, ‘지금’, ‘이따가’가 제시되었을 경우와 제시되지 않았을 경우로 구성하였다. 검사 시 사용한 동사는 조진숙(2003)의 각 연령별 고빈도 동사 어휘목록과 김광해(2003)의 등급별 국어교육용 어휘를 참고하여 고빈도와 친숙도 및 난이도를 조절하여 선정하였다. 또한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차이를

동작으로 표현가능한 것으로 과거 ‘-있(았)’, 현재 ‘-하고 있다’, 미래 ‘-려고 한다’ 를 포함하는 동사 30개를 선정하여 연습과제 6개와 실험과제 24개로 나누었다. 과제는 검사를 실시할 때 사용된 동영상과 검사문항을 말하며 파워포인트에는 같은 시제가 연속으로 3번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순서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시제관련 과제수행 시 영상자료가 주의집중에 도움이 되며 시제지도 시 효과적이었다(이재순, 1998)는 선행연구를 참고하며 기존의 시제관련연구에서는 정지화면이 아닌 시간의 흐름을 영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동영상으로 실험과제를 제작하였다. 언어연령과 고빈도 및 친숙도를 고려하여 동사를 선정할지라도 경도 지적장애아동들은 어휘력의 부족으로 동사자체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동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현재, 미래를 전부 포함하는 전체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그리하여 과거, 현재, 미래시제를 전부 포함하여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전체 동영상을 24초 정도로 제작하고 과거, 현재, 미래시제로 각각 구성된 동영상을 8초 정도로 제작하였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시제를 나타내는 동영상 화면을 각각 1개씩 총 3개를 제작하여 한 화면에 무선 배열하여 제작하였다. 그리고 이를 파워포인트 화면에 배치할 때 한 문항당 총 2페이지로 첫 번째 페이지에는 전체 동영상을 배치하고 두 번째 페이지에는 과거, 현재, 미래시제에 해당하는 동영상을 아동이 볼 때 약 3cm의 일정간격을 둔 형태로 무선 배열하였다. 이는 첫 번째 페이지에서 전체화면을 보여줌으로써 동사원형을 이해하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며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각 시제를 나타내는 동영상을 제시하며 동영상 간에 시제구분을 위해 3cm의 일정간격을 두어 배치하였다.

모든 자료는 캠코더를 이용하여 녹화하였으며 동영상편집프로그램으로 동영상을 편집하였다. 그리고 Microsoft Powerpoint 2010에 제작된 동영상을 삽입하여 평가도구를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제는 <표 2>와 같다. 그리고 본 연구에 사용된 연습과제는 <표 3>과 같으며 실험과제 예시는 <표 4>와 같다.

<표 2> 연구에서 사용된 시제

시제	어미
과거	-있(았)-
현재	-하고 있다
미래	-려고 한다

<표 3> 연습과제

번호	동사원형	목표시제	연습문항
1	신다	과거	신발을 신었다
2	그리다	현재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다
3	색칠하다	미래	이따가 색칠을 하려고 한다
4	긋다	현재	편을 긋고 있다
5	바르다	과거	아까 약을 발랐다
6	따다	미래	병뚜껑을 따려고 한다

<표 4> 실험과제 예시

	동사원형	목표시제	검사문항
1	올라가다	현재	계단을 올라가고 있다
2	닦다	과거	아까 콜라를 닦았다
3	열다	미래	이따가 창문을 열려고 한다
4	끼우다	현재	구슬을 끼우고 있다
5	불다	미래	이따가 풍선을 불려고 한다
6	넣다	과거	동전을 넣었다

3. 연구 절차

시제이해에 대해 제작한 동영상의 시제를 정확하게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언어연령이 6~7세인 일반아동 4명과 경도 지적장애아동 4명을 대상으로 예비실험을 실시하였다. 예비실험 후 시제가 부정확하게 나타난 동영상은 다시 제작하여 보다 정확하게 시제를 나타낼 수 있도록 수정 및 보완하였다. 또한 집단 간 시제이해 능력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실험은 2011년 5월부터 9월까지 대구, 부산, 포항지역의 일반어린이집, 일반유치원, 사설언어치료실, 장애인종합복지관 등에서 선별검사를 통해 연구 대상아동을 선정하여 연구에 부합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소음이 없는 조용한 방에서 검사자와 아동 간에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위치에서 일대일로 진행하였다. 먼저 준비단계로 검사자는 아동에게 컴퓨터 화면을

보도록 유도하였으며 아동이 컴퓨터 화면을 보면 연습과제를 순차적으로 실시하였다. 검사자는 아동에게 과거, 현재, 미래시제를 전부 포함하여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전체 동영상을 24초 보여준 뒤 동사원형을 이해하는지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검사자는 신발을 신으려고 하는 장면, 신발을 신고 있는 장면, 신발을 신은 장면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전체 동영상을 아동에게 보여준 후 전체 동영상 화면이 무엇을 나타내며 동사원형 ‘신다’를 아동이 이해하는지 확인하였다. 그 후 검사문항을 들려주고 각각 8초로 구성된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동영상 1개, 현재시제를 나타내는 동영상 1개, 미래시제를 나타내는 동영상 1개 총 3개의 동영상이 무선 배열된 화면을 보여주며 제시한 검사문항에 해당하는 동영상을 지적하도록 하였다. 아동이 검사문항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어려워할 경우 검사문항을 한 번 더 들려주었다. 시간부사어가 제시된 검사문항의 경우 전체 동영상을 보여준 후 동사원형을 이해하는지 확인하고 구두로 첫 어절에 시간부사어가 포함된 검사문항을 아동에게 들려주고 각각의 시제를 나타내는 동영상을 보여준 후 검사자가 제시한 검사문항에 해당하는 동영상을 지적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시간부사어가 제시되지 않은 검사문항의 경우 전체 동영상을 보여준 후 동사원형을 이해하는지 확인하고 구두로 시간부사어가 포함되지 않은 검사문항을 아동에게 들려주고 각각의 시제를 나타내는 동영상을 보여준 후 검사자가 제시한 검사문항에 해당하는 동영상을 지적하도록 하였다. 검사자는 아동이 연습문항을 통해 실시과정을 숙지하게 하였다. 아동이 실시과정을 숙지하고 연습과제를 수행하면 실험과제를 연습과제에서와 동일한 절차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검사자는 아동의 반응을 아동반응란에 기록하였다.

아동이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캠코더로 촬영을 하였다.

4. 자료 평가 및 자료 처리

1) 자료 평가

아동이 시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검사자가 제시한 시간부사어 및 시제에 해당하는 동영상을 지적한 경우 한 문항당 1점을 주고, 틀린 동영상을 지적하거나 무반응 또는 모르는 경우 0점으로 채점하였다. 연습과제를 제외한 실험과제는 총 24문항으로 시간부사어 ‘아까’가 제시된 과거시제 4문항과 시간부사어 ‘아까’가 제시되지 않은 과거시제 4문항으로 과거시제는 총 8문항이며 시간부사어 ‘지금’이 제시된 현재시제 4문항과 시간부사어 ‘지금’이 제시되지 않은 현재시제 4문항으로 현재시제는 총 8문항이다. 그리고 시간부사어 ‘이따가’가 제시된 미래시제 4문항과 시간부사어 ‘이따가’가 제시되지 않은 미래시제 4문항으로 미래시제 총 8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과거·현재·미래시제에 해당하는 문항을 합한 총 점수는 24점이다.

2) 자료 처리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경도 지적장애아동과 일반아동 간 과거·현재·미래시제이해에 대한 실험 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검정과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둘째, 경도 지적장애아동과 일반아동 간 시간부사어 제시 유무에 따른 시제이해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검정과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셋째, 경도 지적장애아동과 일반아동 내 과거·현재·미래시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경도 지적장애아동과 일반아동 간 시제이해 차이

경도 지적장애아동과 일반아동 간 각 시제에 따른 이해 점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집단 간 시제에 따른 이해 점수 차이 이원분산분석

소스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수정 모형	50.93(a)	5	10.18	3.57
절편	2131.60	1	2131.60	747.72
집단	40.00	1	40.00	14.03*
시제	10.46	2	5.23	1.83
집단 * 시제	.46	2	.23	.08
오차	239.46	84	2.85	
합계	2422.00	90		
수정 합계	290.40	89		

**p* < .05

분석 결과, 집단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시제의 주효과와 집단과 시제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집단의 단순 주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시제별로 경도 지적장애아동과 일반아동 간의 시제이해점수에 대한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6>와 같다.

<표 6> 시제별 집단 간 *t*-검정 결과

시제	경도 지적장애아동		일반아동		<i>t</i>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과거	4.67	1.54	5.87	1.55	2.12*
현재	4.27	1.62	5.53	1.64	2.12*
미래	3.67	2.16	5.20	1.52	2.24*

**p* < .05

t-검정 결과, 시제별 경도 지적장애아동과 일반아동 간의 시제이해 차이는 과거, 현재, 미래시제에서 유의하였다.

2. 경도 지적장애아동과 일반아동 간 시간부사어 유무에 따른 시제이해 차이

경도 지적장애아동과 일반아동 간 시간부사어 유무에 따른 시제이해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집단 간 시간부사어 유무에 따른 시제이해 차이 이원분산분석

소스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i>F</i>
수정 모형	312.93	3	104.31	26.03
절편	3226.66	1	3226.66	805.22
시간부사어 유무	256.26	1	256.26	63.95*
집단	56.06	1	56.06	13.99*
시간부사어 유무 * 집단	.60	1	.60	.15
오차	224.40	56	4.00	
합계	3764.00	60		
수정 합계	537.33	59		

분석 결과, 시간부사어 유무의 주효과와 집단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시간부사어 유무와 집단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시간부사어 유무의 단순 주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경도 지적장애아동과 일반아동 간의 시간부사어 유무에 따른 시제이해에 대한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8>와 같다.

<표 8> 집단 간 시간부사어 유무에 따른 시제이해 *t*-검정

	경도 지적장애아동		일반아동		<i>t</i>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과거시제					
시간부사어 있음	3.20	.77	3.80	.41	2.64*
시간부사어 없음	1.47	1.18	2.07	1.33	1.30
현재시제					
시간부사어 있음	2.73	.59	3.33	.90	2.15*
시간부사어 없음	1.67	1.11	2.20	1.04	1.37
미래시제					
시간부사어 있음	2.40	1.24	3.33	.81	2.43*
시간부사어 없음	1.27	1.10	1.87	.99	1.57

**p* < .05

시간부사어 ‘아까’가 제시된 과거시제에서 경도 지적장애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이해점수가 유의하게 낮았으며 시간부사어 ‘지금’이 제시된 현재시제에서도 경도 지적장애아동은 일반아동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시간부사어 ‘이따가’가 제시된 미래시제에서도 경도 지적장애아동은 일반아동보다 유의하게 낮은 이해도를 나타냈다. 이를 통해, 경도 지적장애아동은 일반아동보다 시간부사어가 있는 과거, 현재, 미래시제의 이해도가 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경도 지적장애아동과 일반아동 내 시간부사어 제시 여부에 따른 시제이해 차이

경도 지적장애아동과 일반아동 내 시간부사어의 제시 여부에 따라 과거·현재·미래시제이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시간부사어 제시 여부에 따른 시제이해점수에 대한 집단 내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집단 내 시간부사어 제시 여부에 따른 시제이해 t -검정

	시간부사어 제시 여부				t
	시간부사어 제시됨		시간부사어 제시되지 않음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경도 지적장애아동					
과거시제	3.20	.77	1.47	1.18	5.24*
현재시제	2.73	.59	1.67	1.11	4.29*
미래시제	2.40	1.24	1.27	1.10	4.79*
일반아동					
과거시제	3.80	.41	2.07	1.33	5.49*
현재시제	3.33	.90	2.20	1.04	4.43*
미래시제	3.33	.81	1.87	.99	5.73*

* $p < .05$

경도 지적장애아동과 일반아동 모두 과거, 현재, 미래시제에서 시간부사어가 제시되었을 때 유의하게 차이가 있으며 높은 수행을 보였다. 시간부사어의 제시 여부에 따라 시제이해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은 시제를 이해함에 있어 시간부사어를 활용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경도 지적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집단 간에 시제이해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실시하였으며, 또한 각 집단 간 시간부사어 유무에 따른 시제이해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시간부사어의 이해도를 파악하기 위해 집단 내에서 시간부사어 제시 여부에 따른 시제이해 차이 및 양상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도 지적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과거·현재·미래시제 총점이해에 대해 알아본 결과 일반아동이 경도 지적장애아동보다 이해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경도 지적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을 비교하였을 때 과거·현재·미래시제이해에서 일반아동에 비해 경도 지적장애아동이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경도 지적장애아동과 일반아동 모두 과거시제에서 가장 높

은 점수를 획득하였으며 다음으로 현재, 미래 순으로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경도 지적장애아동들 역시 일반아동들과 같은 패턴을 보였는데, 이는 언어연령을 6~7세로 일치시킨 경도 지적장애아동들이 시제이해측면에서 일반아동들과 비슷한 패턴으로 발달해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적장애아동들의 언어발달형태는 중도 이하의 아동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10세가 되기 전까지 발화길이, 발화양, 말속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일반아동들과 유사한 형태로 발달하며, 10세 이후가 되면 언어발달형태나 질적 측면에서 차이가 나타난다(Naremore, & Daver, 1975, Owens, 2002). 경도 지적장애아동들은 전반적인 구문구조발달순서는 일반아동들과 유사하나, 발달속도는 더 느린 경향이 있다. 문장길이와 복잡성은 연령발달에 따라 증가하고 문장형태와 발달순서도 일반아동과 거의 동일한 형태를 보이거나 정신연령이 동일한 일반아동들에 비하면 문장길이가 짧고 단순한 문장을 사용하는 특성을 나타낸다(Mcleavey, Toomey, & Dempsey, 1982). Kamhi와 Johnston(1982)은 경도 지적장애아동들과 비슷한 정신연령을 지닌 비장애아동들과 언어발달에 대한 비교연구를 실시한 결과 경도 지적장애를 지닌 아동들의 구문발달은 비장애아동들과 유사하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 결과는 지적장애아동이 일반아동과 발달순서는 동일하나 발달속도에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들(Naremore & Daver, 1975, Owens, 2002, Mcleavey, Toomey, & Dempsey, 1982, Kamhi & Johnston, 1982)과 비슷하다. 또한 경도 지적장애아동의 시제발달은 정상아동보다 느리지만 비슷한 패턴으로 발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한 선행연구결과(Wheldall, 1976)와 일치하였다.

둘째, 경도 지적장애아동과 일반아동 간 시간부사어 유무에 따른 과거·현재·미래시제이해에 차이를 보였다. 시간부사어 '아까'가 제시된 경우 과거시제이해에서 경도 지적장애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과거시제이해능력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부사어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상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현재를 나타내는 시간부사어 '지금'이 제시된 경우에도 현재시제이해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현재를 나타내는 시간부사어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는 경도 지적장애아동과 일반아동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부사어 '이따가'가 제시된 경우에도 미래시제이해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부사어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시간부사어가 제시되었을 경우 일반아동과 경도 지적장애아동 간 시제이해력에 차이가 있으며 일반아동은 시간부사어가 제시되었을 때 시제를 더욱 잘 이해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과거, 현재, 미래시제이해과제에서 일반아동들은 경도 지적장애아동에 비해 시간부사어를 제시한 동영상의 시제를 더 잘 이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경도 지적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은 시간부사어 제시 여부에 따라 집단 내에서 과거·현재·미래시제이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도 지적장애아동은 일반아동과 마찬가지로 시간부사어가 있을 때 시제를 더 잘 이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도 지적장애아동도 일반아동과 유사하게 시간부사어를 활용하여 시제를 이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경도 지적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과거, 현재, 미래시제이해와 시간부사어 제시 유무에 따른 과거, 현재, 미래시제이해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시간부사어 제시 유무에 따른 시제이해 점수 차이를 살펴보면 일반아동이 경도 지적장애아동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경도 지적장애아동이 일반아동보다 시제활용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시제를 이해할 때에는 어휘적인 요인, 맥락적인 요인 등 여러 가지 요인들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여 시제를 교육하여야 하는데 그 중 시간부사어는 시제를 더욱 명백하게 해주는 요인 중 하나로 시제이해 및 지도 시제를 해주면 이해력에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므로 경도 지적장애아동 시제지도 시 시간부사어를 제시해주는 것이 시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그림자료보다 실제적인 상황과 유사하고 각 시제와 관련된 시간의 흐름에 대해 표현이 가능한 영상자료를 이용하여 흥미를 유발한 후 다양한 자극을 제시하여 시제를 교육하면 시제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경도 지적장애아동의 시간부사어 제시 유무에 따른 시제이해양상 및 수준을 파악하는 좋은 기준이 될 것이며 이 기준을 평가 및 중재 시에 적용함으로써 임상적 기초자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특수교육현장에서 시제지도 시 시간부사어를 제시하거나 영상자료를 이용하면 시제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표집수가 적고 언어연령이 6~7세 사이로 제한되었으며 시제이해연구만 실시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시간부사어 ‘아까’, ‘지금’, ‘이따가’ 로 제한하여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구문의 한 영역인 시제만을 살펴보았다는 점이다.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 및 성별에 따라 대상자의 수를 늘리며 시제표현에 대한 연구와 다양한 상황에서 시제에 대해 알아보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창욱, 임정미 (2004). 생활 속의 글감을 이용한 읽기 지도가 정인지체아동들의 글 내용 이해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특수교육: 이론과 실천**, 5(3), 41-71.
- 곽금주, 박혜원, 김청택 (2001). **한국판 웨슬러 아동 지능검사(K-WISC-III)**. 서울: 도서출판 특수교육.
- 김광해 (2003). **등급별 국어교육용 어휘**. 서울: 박이정.
- 김영태 (2005). **아동언어장애의 진단 및 치료**. 학지사.
- 배소영 (1995). 우리나라 아동의 언어발달: 언어발달진단의 일차적 자료, 언어치료전문요원 교육, 서울, 한국언어병리학회.
- 서봉연, 주영희 (1986). 언어의 발달과 지도.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송상희 (2009). 과거시제 '었'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신종호, 이강희 (2002). 일반아동과 경도지적장애아동의 상황, 조건인과관계에 대한 언어이해 능력 비교연구, 1.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47-69.
- 안정현 (2007). 고등부 정인지체 학생의 어휘 확장을 위한 마인드 맵 프로그램연구.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원혜미 (2005). 3-5세 아동의 시제어미이해와 산출의 정확성. **음성과학**, 12(4), 183-195.
- 이연섭, 권경안, 정인실 (1980). **한국아동의 어휘발달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영자, 이종숙, 이정옥 (1997). 1, 2, 3세 유아의 의미-통사적 발달연구: 문법 범주 및 문장 유형의 발달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17(2), 55-74.
- 이재순 (1998). 체험 학습활동 영상자료와 마인드 맵 활용을 통한 시제지도가 청각장애학생의 문장표현력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총연합회, 1-101.
- 이필영, 전은진, 장은화 (2009). 유아의 시간 부사어 발달에 관한 연구. **우리말연구**, 25, 349-385.
- 이필영, 전은진, 안정호 (2009). 영아의 시제 상 형태 습득에 관한 연구. **한국어학회**, 44, 295-385.
- 조명한 (1982). **한국아동의 언어획득 연구: 책략모형**.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조유진 (2001). 정인지체 아동의 화행구성 규칙수행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공주대학교 대학원.
- 조진숙 (2003). 3-6세 아동의 발달에 따른 동사어휘특성 및 빈도연구. 석사학위 논문,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 최은희 (2000). 한국 아동의 어휘발달 연구: 13-30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황미하 (2003). 2;6-3;5세 한국아동의 언어습득에 관한 종단적 연구.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Bricken, W. A., & Bricken, D. D. (1970). Development of receptive vocabulary In severely retarded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Mental deficiency*, 74, 599-607.
- Hegde, M. N. (1995). *Introduction to Communicative Disorders*. second edition. Austin,

Texas: pro-ed.

- Kamhi, Alan. G., & Johnston, J. R. (1982). Towards an understanding of retarded children's Linguistic deficiencies.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25(3), 435-445.
- McLeavey, B., Toomey, J., & Dempsey, P. (1982). Nonretarded and mentally retarded children's control over syntactic structures. *American Journal of Mental Deficiency*, 86, 485-494.
- Michael, S. C. Thomas., & Lorraine, K. Tyler. (2001). Past tense formation in William syndrome. *Language and Cognitive Processes*, 16(2/3), 143-176.
- Naremore, R., & Dever, R. (1975). Language performance of educable mentally retarded and normal children at five levels.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18, 82-95.
- Owens, R. E. (2002). *Mental retardation: Difference and delay*. In D Bernstein & E. Morris (Eds.), *Language and communication disorders in children* 5th ed. Boston: Allyn & Bacon, 426-509.
- Paul, R. (2007). *Language disorders from infancy through adolescence: Assessment and Intervention*. St. Louis: Mosby.
- Rice, M., & Wexler, K. (1996). Toward Tense as a Clinical Marker of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in English-speaking children.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39, 1238-1257.
- Thomas, M. S. C., Grant, J., Barham, Z., Gsodl, M., Laing, E., & Lakusta, L. (2001). Past tense formation in Williams syndrome. *Language and Cognitive Processes*, 2(16), 143-176.
- Wheldhall, K. (1976). Receptive language development in the mentally handicapped. In P. Berry (Ed), *Language and communication in the mentally handicapped*. London: Edward Arnold.

A Comparison Study on Children's understanding of Tense between Normal and Mildly intellectually Disabled Children

Choi, Sun Hee

Graduate School of Daegu University

Kim, Wha Soo

Daegu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at the a tense understanding ability of 15 mildly intellectually disabled children and 15 normal children whose linguistic age ranges from 6 to 7 through an assignment on understanding tenses, an important aspect of a time concept. The study result is as follow: First, mildly intellectually disabled children showed a lower ability to understand tenses than normal children. Second, when taking a look at the suggestion availability of time adverbs and an ability to understand tenses, mildly intellectually disabled children showed a lower ability to understand tenses than normal children. Third, mildly intellectually disabled children showed a lower execution level than normal children, but both groups followed a similar tense development process. Fourth, when time adverbs are suggested, tense understanding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However, when they were not suggested, tense understanding did not show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conclusion, as for tense understanding with the availability of suggested tense adverbs, mildly intellectually children generally showed a lower execution ability than normal children, but both groups' development order indicated a similar order. Therefore, we expect that it would be effective to teach tenses starting from past → present → future, a similar order for normal children. Also, both normal children and mildly intellectually disabled children understood tenses better when time adverbs were suggested. Therefore, suggesting time adverbs for understanding tenses would be of help.

Key Words : mildly intellectually disabled children, tense, time adverbs

논문 접수: 2012. 02. 05 심사 시작: 2012. 02. 10 게재 확정: 2012. 03. 16

<부록 1> 시제이해검사 기록지

시제이해검사 결과 기록지

일반적인 정보			
아동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장애유무	
나이/소속/학년		형제관계	_남 _여, 번째
부모직업		부모학력	부: 모:
검사일		연락처	
주소			

검사결과		
총점		/24
과거시제	시간부사어 제시됨	/4
	시간부사어 제시되지 않음	/4
	과거시제총점	/8
현재시제	시간부사어 제시됨	/4
	시간부사어 제시되지 않음	/4
	현재시제총점	/8
미래시제	시간부사어 제시됨	/4
	시간부사어 제시되지 않음	/4
	미래시제총점	/8

<부록 2> 시제이해검사 검사지

시제이해검사지

1. 시제이해 연습과제


	동사원형	목표시제	연습문항	아동반응(+/-)
1	신다	과거	신발을 신었다	
2	그리다	현재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다	
3	색칠하다	미래	이따가 색칠을 하려고 한다	
4	꽃다	현재	핀을 꽃고 있다	
5	바르다	과거	아까 약을 발랐다	
6	따다	미래	병뚜껑을 따려고 한다	

2. 시제이해 실험과제

	동사원형	목표시제	검사문항	아동반응(+/-)
1	올라가다	현재	계단을 올라가고 있다	
2	닦다	과거	아까 쿨리를 닦았다	
3	열다	미래	이따가 창문을 열려고 한다	
4	끼우다	현재	구슬을 끼우고 있다	
5	불다	미래	이따가 풍선을 불려고 한다	
6	넣다	과거	동전을 넣었다	
7	붙이다	미래	스티커를 붙이려고 한다	
8	만들다	과거	아까 별모양을 만들었다	
9	닫다	미래	뚜껑을 닫으려고 한다	
10	뽑다	현재	지금 휴지를 뽑고 있다	
11	찍다	과거	도장을 찍었다	
12	넘기다	미래	이따가 책을 넘기려고 한다	
13	먹다	과거	밥을 먹었다	
14	깎다	미래	연필을 깎으려고 한다	
15	마시다	현재	우유를 마시고 있다	
16	앉다	현재	지금 의자에 앉고 있다	
17	내려가다	미래	이따가 계단을 내려가려고 한다	
18	차다	현재	지금 공을 차고 있다	
19	자르다	과거	아까 종이를 잘랐다	
20	찢다	현재	지금 종이를 찢고 있다	
21	쓰다	미래	글씨를 쓰려고 한다	
22	빚다	과거	아까 머리카락을 빚었다	
23	입다	현재	옷을 입고 있다	
24	뜯다	과거	과자봉지를 뜯었다	
총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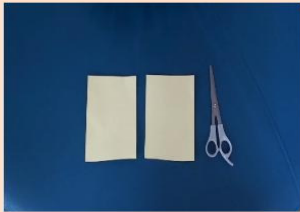

<부록 3> 시간부사어가 제시된 시제이해문항 동영상 장면 예시

과거·현재·미래시제를 연속적으로 전부 포함한 전체 동영상 시작장면



동사원형 - 종이를 자른다.

과거시제, 현재시제, 미래시제를 각각 나타내는 동영상 장면 3개

1	2	3
		

이때가 종이를 자르려고 한다 / 아까 종이를 잘랐다 / 지금 종이를 자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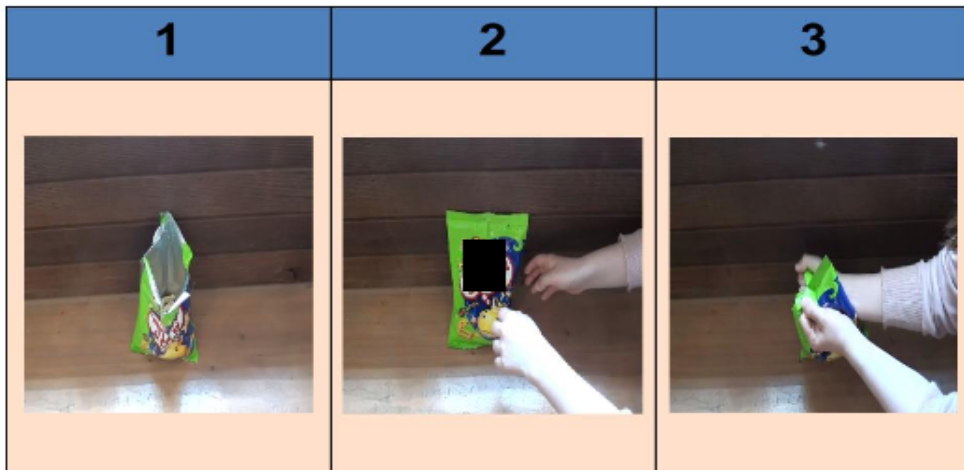
<부록 4> 시간부사어가 제시되지 않은 시제이해문항 동영상 장면 예시

과거 · 현재 · 미래시제를 연속적으로 전부 포함한 전체 동영상 시작장면



동사원형 - 과자봉지를 뜯다.

과거 · 현재 · 미래시제를 각각 나타내는 동영상 장면 3개



과자봉지를 뜯었다 / 과자봉지를 뜯으려고 한다 / 과자봉지를 뜯고 있다